

한국 장수도 변화의 공간적 특성

Spatial Characteristics of Change of Longevity Degree in Korea

정은진(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ejjin@snu.ac.kr)

송경언(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kusong2030@freechal.com)

본 연구는 1966년 이후 한국의 장수도 변화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8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구하고, 이것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어떠한 변화의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966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수도 평균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간 표준편차는 1의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높은 장수도를 나타내는 곳은 제주도, 전 지역의 장수도가 $n+2s$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셋째, 호남지방의 경우 섬과 해안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던 장수도가 80년을 기점으로 내륙지방까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넓은 장수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넷째, 영남지방의 장수도는 85년 호남 장수지역 인접 시군구로 확장되던 것이 90년부터 다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중산간지역으로 이동·확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한편 90년부터 동시에 단수지역도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은 장수 지역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강원지역은 단수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단수지역에서 탈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경우 95년을 기준으로 서초구와 강남구가 장수지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 볼 수 있겠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2000년에 와서 지역별로 많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인구유출 현상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1965년 기준 30세 인구는 2000년 현재 65세가 된다. 그런데 60년대 30대의 인구는 엄청난 농촌 유출인구의 주축을 형성했던 그룹이다. 따라서 이들의 진출이 2000년 현재 장수도 값 계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며, 따라서 60년대 인구유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